

전남도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사업' 선정...근로자 확보 숨통

법무부 주관...인구 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장흥·강진·해남·영암' 우선 추진...“제도 운영 최선 다할 것”

전남도가 외국인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돼 외국인 근로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법무부가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장흥·강진·해남·영암' 등 4개 군을 대

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사업은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과 인구유출 억제에 목적으

로 시행한다. 오는 10월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우수인재'(유학생), '동포 가족'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영암군과 해남군을 대상으로 '우수인재' 유형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에는 학력·소득·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만족하는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조감지역 취업과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F-2(우수인재) 비자를 발급한다. '인구 감소지역' 유형사업은 영암·해남·장

흥·강진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들 지역에는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F-4(동포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취업활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외국인과 그 가족의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 장기체류 비자사업을 향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대학·기업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과 약 1500여명이 필요한 조선업 근로자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법무부 협조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취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HDC 강력 처벌해야” 민주당 서울-광주시의회 공동성명

“불법·부실 공사로 국민 생명 앓아, 등록말소 등 강력 조치를”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붕괴 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HDC)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벌을 촉구했다. 두 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13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불법·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앓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 사고조사위는 지난 3월 무단 구조 변경을 비롯한 총체적 관리 부실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의 주된 원인으로 규정한 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29일 개막...10월 9일까지 5·18 민주광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서

2022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이하 GMAF 2022)이 오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5·18 민주광장·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GMAF 2022는 '도시에 색을 올리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행사기간 5·18 민주광장에는 주무대인 GMAF 미디어큐브가 설치된다. 주무대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작품과 크라이닉·노브레인 등 정상급 케이팝 그룹, 일렉트로닉 뮤직밴드 이디오테일·디제이(DJ) 공연 등이 펼쳐진다. 프린지페스티벌·버스커즈월드컵 등 지역 문화 행사와 연계한 다채로운 공연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오스트리아 린츠)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 토루 이즈미(일본)와 유진 코드노브(미국)가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음향·영상 행위 예술을 선보인다. **이슬비기자**

전남도 동부본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사전 성황 분위기 조성 위해 전 기간권 650만원 상당

전남도는 2023년 4월 1일 개막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200여 일 앞두고 동부지역본부가 전 기간 입장권 650만원 상당을 구매하는 약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미래 생태도시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도심권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펼쳐진다. 현재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전 성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9월까지 입장권 사전예매 약정 시 20% 파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9월 이후 구매 약정 시 10~15% 단계

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은수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남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도민 모두가 홍보대사가 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국가정원에서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제21회 산의 날 기념행사,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등 전국단위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국내외 문화행사 유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사전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은 8월 11일부터 공식



개설됐다. 입장권 안내와 박람회 미리보기, 관련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s://scbay.suncheon.go.kr/exp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디어아트 놀이터도 운영한다. 미디어아트 기업인 디아랩과 KT의 가상현실 체험, 플라스틱 재활용 체험과 증강현실 단말기(키오스크) 포토존, 알지비랩(RGB LAB)의 야외 설치 전시까지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로 채워진다. 오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전시 5관에서 펼쳐지는 기획전시 '유희(遊)·물길'은 사물의 시선과 인간의 행위를 상상력의 언어로 놀이하는 미디어아트 이야기를 담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A ELECTRONICA) 초정작품과 국내 유수의 미디어아트 기업인 자이언트스텝이 참여한다. 올해 1회로 진행되는 GMAF 미디어아트 공모전 수상작 5개 작품도 함께 전시한다. **서선옥기자**

한국인본진흥재단
Korea First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남님께서 재탄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배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125,531원	1.1배
4분위	125,531원	79,147원	1.7배
3분위	79,147원	48,103원	2.1배
2분위	48,103원	26,697원	2.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총량 129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고객센터 15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